

알리는 말씀 Announcements

● 환영 (Welcome)

Welcome!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예배 후 환영실에서 담임목사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청지기 훈련 (Stewards Training)

이번 주간 2차 훈련이 계속됩니다. 노트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시기 바라고 1차 훈련에 불참하신 직분자들은 영상 강의를 보시고 답안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집사반: 1/25(화) 오후 8시 * 권사반: 1/27(목) 오후 8시

● 새벽기도회 (Early Morning Prayer Meeting)

대표 기도자들은 열심히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금 영수증 발행 (Issuance of Offering Records)

세금 보고용으로 필요한 가정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핸드북 교우정보 수정 및 추가 (Revision of Handbook)

교우 정보(이메일 주소/전화번호 변경/ 집주소 등)수정 받습니다. 교회 이메일 주소 등재하시기 바람

● 핸드북용 사진촬영 (Photo For Handbook)

교회 핸드북에 들어 갈 모든 교우들 사진을 촬영합니다.(기존교우 포함)

* 일시: 1/23(주일) 2,3부 예배 후 / 로비

● CPC 한국학교 봄학기 교사 구함 (CPC Korean School)

* 수업 기간: 3/5(토) - 6/18(토) * 시간: 9am-12pm

* 교사 자격: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분

* 문의: 서경희 집사(917-405-5369), koreanschool.cpcny@gmail.com

교우소식

● 장례 - 이성숙 권사님 자녀 애나양의 장례가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이번 수요일 오후 2시에 화장 기도회가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일 - 김 석 홍희정 이우식 김병순 김여순

모임안내

● 파더 와이즈 - 매주 월 8:30pm, Zoom

● 새땅 13기 새가족반 개강 - 2/6(주일) 1:30pm, 초등부실

담임 목사 방송설교

KCBN
미주기독교방송국
(AM 740 / www.kcfn.us)

라디오코리아
(KRB FM 87.7)

단비TV
스팩트럼
(CH 1487)

매주 목 7:00 am
매주 목 3:00 pm
매주 목 11:00 pm

매주 수 6:30 - 7:00 am
매주 주일 6:00 - 6:30 am

매주 주일 10:00pm
재방송 월 12:00pm

교회 안내 Church Information

예배	시간	교회학교	시간	섬기는 분들
주일 1부예배	주일 8:00am	Angels 1-2Yr.	주일 12:00pm	부목사 조영찬 (청년.영성)
주일 2부예배	주일 10:00am	Promise Kids 3-5Yr.	주일 12:00pm	이정환 (방송선교)
주일 3부예배	주일 12:00pm	Dreamers 1-2Gr.	주일 12:00pm	심 언 (영육사역)
EM 예배	주일 10:00/12:00pm	History Makers 3-5Gr.	주일 12:00pm	전도사 김아영 김예환
수요저녁예배	8:00pm	All Stars 6-8Gr.	주일 12:00pm	정수경
새벽예배	월-토 5:30am	Visionaries 9-12Gr.	주일 12:00pm	합동전도사 유영희
수요비전기도회	수 10:00am	AWANA Club	금 7:30pm	사무장로 광병국 영형국
한청년부모임	주일 1:00pm	Korean School	토 9:30am	이창원 이성주
선교회주일	둘째 주일	Preschool	TBD	이항근 서명환
MotherWise	목 10:00am	Mommy & Me	화,수,금 10:00am	이재환 박요한
삼야기도회	셋째 수요일 예배후	After School	월-금 3:00-5:30pm	송피터 박덕수
				신준호
				찬양인도 조영찬 어창규
				지휘 광병국(디렉터)
				반주 문정원 양혜숙

후원 선교사 및 기관 Sponsored Missionaries & Organizations

	선교사	선교회	선교지		선교사	선교회	선교지
파송	최동훈	6-3	케냐 문요야아족	연련	정철화/조정자	4-1	오세아니아
	권강혁/장미경	5-3	서아시아 T국		허충강/이미화	6-4	러시아 모스크바
	김경봉	7-3	멕시코		박신욱/유혜숙	3-1	SEED 본부
	제임스/제인길	4-2	I국		김도수/김정희	6-2	러시아
	이재기/이미라	6-4	하와이		김경술/김예원	4-1	SIM한국국제선교회
	장석창/이은주	7-2	아프리카A국		우석운/우소영	4-3	아프리카 M국
	최광규/주선자	5-1	도미니카		이종선/정민실	7-3	브라질
	박광석/김남희	6-3	아프리카 S국		강만숙/에스더	4-4	일본
	홍은선	7-1	미국 본부		피터윤/셀리베	한어청년	방글라데쉬
	정익모/박금란	5-5	방글라데쉬		방대식/박형엽	5-4	우크라이나
연련	김병균/김복향	6-2	페루	마크김/레이첼	6-1	일본	
	김명환/남화수	4-3	이디오피아	김진영/김은경	5-2	서아시아 T국	
	탁수연/탁미혜	6-5	이집트	김평강/한사랑	5-3	OMF 본부	
	양영학/양경신	6-1	아시아 X국	김현일/고은정	4-2	중동E국	
	김재열/이영남	8-1	동북아시아 N국	조수아/김/사라	5-4	아프리카 기니	
	윤태권	7-4	서아시아 T국	장세균/최은경	5-5	온두라스	
	이동홍/김연희	3-2	니카라과아	정철웅/손영진	5-2	아시아X국	
	심재욱/장선애	5-1	파푸아 뉴기니아	조종문/조영미	4-4	미국	
	김성일/서혜숙	7-1	아시아T국	김하영	7-2	일본	
				김재우/이현숙	6-5	미국	
기관	SEED선교회		미국	기관	국제도시선교회		미국
	국제장애인선교회		미국		뉴욕실버선교회		미국
	발리언선교회		중국		그린원도우		브라질
	YWAM		미국		아이온선교회		미국

오시는 길 Direction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뉴욕센터교회
Central Presbyterian Church of NY

154 Old Westbury Rd.
Old Westbury, NY 11568
Tel: 516-387-9940, 42 (EM)
E-Mail: cpcofny91@gmail.com
www.cpcofny.org

후원 Donation

Check: Pay to the order of **CPC of NY**

주후 2022.1.23

제 05-04호

본이 되는 성도, 존경받는 교회

An Exemplary Believer, A Respected Church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Show Me Your Faith

야고보서 James 2:18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뉴욕센터교회
Central Presbyterian Church of NY

VISION

Glory and Grace
백찬 예배

Learn or Teach **알찬 교육**
Go or Support **널리 선교**
Serve or Share **고루 봉사**

담임목사 김재열 Rev. Jaeyeol Kim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인도(Officiator) 1,2,3부: 김재열 담임목사

	1부 예배 8:00 am	2부 예배 10:00 am	3부 예배 12:00 pm
•경배와 찬양 Praise	Soli Deo 찬양팀	Rejoice 찬양팀	Hessed 찬양팀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Officiator		
•사도 신경 Apostle's Creed	다같이 Together		
대표 기도 Prayer	박요한 장로 Elder Y. PARK	이재량 장로 Elder J. LEE	이재량 장로 Elder J. LEE
찬양/봉헌 Anthem/Offering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찬송가 Hymn 50장
광 고 Announcement	인도자 Officiator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갈라디아서 Galatians (2:1-5)		
설 교 Sermon	<갈라디아서 연속 설교 No.3>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Into the Truth of the Gospel		
	김재열 목사 Rev. Jaeyeol KIM		
• 찬 송 Praise	찬송가 Hymn 54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 축 도 Benediction	김재열 목사 Rev. Jaeyeol KIM		

• 표는 일어서서 (Please Stand!), 찬송은 4부로 (Chorus by Parts)

다음주 기도 1) 박덕수 장로 2,3) 신준호 장로

영어 예배 (English Service) - 10am, 12pm

수요일예배 Wednesday Service

	수요일 비전 기도회 10:00 am	수요일 저녁 기도회 8:00 pm
기도 Prayer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 강내우 집사(나눔주: 김성문 집사)
말씀 Sermon	이루어지다 (마태복음6:10) 말씀 - 이정환 목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배움 제14장 구원하는 믿음에 관하여 말씀 - 김재열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Early Morning Service

인도: 교역자 (월-토) 5:30 am

요일	성경 본문	찬송가	기도자	주 제
월(24)	요 7:14-24	205	김용노 / 김경보	권위 있는 가르침
화(25)	요 7:25-36	92	김태호 / 김문정	예수님의 출신과 목적지
수(26)	요 7:37-52	182	김형범 / 김연배	생수의 강
목(27)	요 7:53-8:20	421	문휘섭 / 김영미	어둠의 세상, 생명의 빛
금(28)	요 8:21-30	96	서철호 / 김은숙	네가 누구냐
토(29)	요 8:31-41	449	배한상 / 낸시김	진리가 주는 자유
주(30)	요 8:42-59	289		아브라함보다 크신 하나님

주요행사 일정 Event Schedule

일 시	내 용
1/18(화) - 2/3(목)	청지기 훈련
2/6 (주일)	새땅 13기 새가족반 개강
2/11(금)	금요 찬양 기도회
2/13(주일)	선교회 주일

예배 · 친교 · 주차 위원 Serving for Worship

예배	1월 안내 위원	헌금	친교
1부	이성주 서명환	한철재 한혜경	매월 둘째 주일 선교회 모임
2부	염형국 이재량	최선주 권경숙	
3부	염형국 이재량	이달우	

목장 칼럼

♥ 가시나무 할머니 ♥

아일랜드 전설에 ‘가시나무새’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새는 등지를 나와 평생을 편히 쉬지도 못하고 새끼들에게 먹이를 날라주기 위해 날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일상에 한 번 가장 슬픈 노래를 부르고 날카로운 가시나무 가시에 가슴을 찌르고 죽습니다.

오래 전 겨울이었습니다. 지금의 고양 시(市) 쪽으로 취재하러 갔다가 열차를 타고 신문사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 다. 내 옆자리에는 연세가 지극한 할머니께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앉아 계셨습니다. 나는 목례를 하고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참 있다가 “어디까지 가시느냐”며 고개를 돌렸더니 할머니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무엇을 간구하시기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창밖을 가리키며 나직한 목소리로 “하얀 눈으로 덮인 산야가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설경(雪景)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놓고 시(詩)를 쓴다고 하면서 삼시나마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할머니는 왼쪽 눈에 안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까닭을 물었습니다. 돌아 온 대답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실명한 아들에게 한쪽 눈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눈을 나누어 주어 아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이거야말로 정녕 하나님의 크나 큰 축복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여러 가지 생필품을 떼어다 시골 동네를 찾아다니며 파는 방물장수였습니다. 성혼한 아들과 딸이 셋씩이나 있지만 도회지로 나가 저 살기에 바쁘는데, 어디 어미까지 챙길 겨를이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막이지만 내 집을 지키며 이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다가오는 명절에는 손자 손녀들에게 학비에 보태 쓰라고 돈을 좀 넉넉히 주려면 얼른 한 푼이라도 더 벌여 놓아야 할 텐데, 경기가 전과 같지 않아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돈을 벌 수 있게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찬송가를 흥얼거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일찌기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 분도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자신은 못 드시고 못 입어서도 오로지 자식이 먼저 었습니다. 아들에게 육신의 일부를 주어 불편한 몸이지만 자식들에게 전혀 의지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손자 손녀들이 찾아오면 학비를 보태 주려고 행상에 나선 할머니. 그런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 가시는 할머니의 밝은 모습은 큰 감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삶은 가시나무새처럼 일생을 자식을 위해 애쓰다가 마지막 애절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세상을 떠나지 않을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니까 내 앞에 계신 ‘가시나무 할머니’는 바로 성인(聖人)이었습니다. 나는 할머니를 만난 후로 범사(凡事)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물론이고, 아침에 눈 뜨면 살아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저녁이면 하루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냈음에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할머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 받은 글에서 -

교우 사업체 안내	* 보석(주얼리) - 박보규집사 / 박효중권사 718-428-9852 * 보험 - 서명환 장로 917-405-4230 Mseoland5@gmail.com
-----------------	--